

# 영화읽기의 초보에서 깊이까지

##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2

정재형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최근 몇년 사이 영화관계 서적은 유행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호황은 미래학자들의 연구와 같이 미래에 반드시 도래할 어떤 현상이 결국 오고야 만 것인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력화 현상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국영화는 최근 부쩍 달라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국제화의 시장경쟁 속에 뛰어들어든 것이다. 이는 비단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속성은 아니다. 독자들도 그러한 현실을 읽고 싶어하며 알고 싶어한다.

### 영화서적 출판의 몇가지 특성

영화서적은 크게 몇 갈래에서 관심을 갖고 출판되고 있다. 종래 매스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확장된 미디어의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갈래인 문화이론 연구의 지적 호기심, 주로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을 흥미있는 과제로 삼고 있다. 또 한 갈래는 영화 자체의 깊이 있는 계보학에 관한 것이다. 영화사, 영화평론, 영화개론, 영화감독연구, 영화 기법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타이야기, 영화 뒷이야기, 영화음악 이야기, 비디오 가이드가 고작이었던 종래의 출판현황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되는 성장이다.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두 세가지 것들》(구회영 지음, 한울)은 가장 초보적으로 영화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책. 이 책은 영화의 백과사전적 지식의 보고처럼 느껴진다. 영화 주변에서 늘상 통용되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면서 많은 대중독자들은 영화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영화의 다양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수준으로 영화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 저자의 입장이 뚜렷한 하나의 시각을 견지하지 못하므로 단순히 흥미거리 차원을 못넘어가는 단점이 있다. 실제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 저자의 임의적인 자료정리가 대중을 영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최소수단이란 것을 명심할 것.

YMCA 내에 있는 '건전비디오 연구회'는 해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건전비디오를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민이 뽑은 건전비디오 100선》의 발간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그저 평범한 가이드 책이 아니

최근의 영화관련서들은 더욱 확장된

미디어 측면에서의 관심, 문화이론

연구의 지적 호기심, 영화 자체의

깊이있는 계보학에 관한 탐구 등의

세 갈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영화문화의 방향성 있는

장기기획이 더욱 요구된다.

다. 시중에는 많은 비디오 가이드 책이 나와 있지만 이 책만큼 방향성이나 의식면에서 투철한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씌어진 책은 드물다. 영화의 선정 안목이라든가 각 영화에 대한 충실한 해설도 다른 책에 비교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화적 의식의 차원에서만 영화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시야가 미처 포섭하지 못한 다양한 영화적 활동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저서인 《정재형교수의 영화강의》(영화언어)는 영화개론에 해당하는데, 기존의 영화책이 갖고 있는 단점을 상당히 보완하고 있다. 번역어투에서 오는 불편함이 일단 없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 책은 우리식으로 쉽게 영화의 제요소를 파악하게 하고 있다. 대중영화로부터 영화의 개론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초창기에서 해방이전까지의 한국영화의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는 《한국영화역사 강의》(이효인 지음, 이론과실천)가 있다. 한국영화사는 이제까지 몇 안되는 영화평론가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그 영화사의 업적은 보수적이며 과거 시대의 고루함마저 갖고 있어서 젊은 세대의 역동적이며 진보적인 사관을 수용하기엔 무리였다. 이효인의 한국영화사는 신세대의 가치관과 진보적인 역사관에 기초한 바람직한 한국영화사로서 단연 독보적이다. 이 책은 종래 한국영화사들이 감추어 두었던 자료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시 정확한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 영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다.

《김성곤 교수의 영화에세이》(김성곤 지음, 열음사)는 전문적인 영화평론가가 아닌



시각예술인 영화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한 책들이 또다른 영화문화 시대를 이끈다. 사진은 영화전문서점 키노.

영문학자의 입장에서 씌어진 영화평론서라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영화의 지평은 넓으면 넓을수록 값지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영화를 하나의 텍스트로 하여 자신의 연구영역을 확장시키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영화인 혹은 영화대중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학문은 상호연계적, 보완적이어야 한다. 그 점을 실감하는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서구영화 특히 미국영화에 대한 문화사적인 시각을 얻는데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미국영화를 표면적으로만 읽었다면 이 책을 통해 심층에 자리한 문화적 맥락을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의 방향성 고려한 장기기획 요구

가장 본격적인 영화미학 입문서로 《필름아트》(데이비드 보드웰 지음, 이용관·주진숙 역, 이론과실천)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수준은 대학원에서 영화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기초가 되는 책이다. 따라서 영화를 취미수준으로 보는 대중들에게엔 너무 어려운 책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었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최근 10여년내의 미국영화계의 학문 방법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방식으로 떠오른 신행식주의 영화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신행식주의란 영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해독과 영화의 내용, 주제를 동일한 가치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본격적인 영화비평의 기초를 이루는 사조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10여편의 영화를 시범적으로 분석한 평론을 실음으로써 영화분석의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

로 제시한 점이 유용하다.

《베트남에서 레이건까지》(로빈 우드 지음, 이순진 옮김, 시각과언어)의 저자인 로빈 우드는 마르크시즘과 정신분석을 결합시키는 방법론을 택하지만, 그의 여전한 관심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해체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미국 대중영화라는 텍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지배적인 꿈과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식 혹은 그것은 깨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다른 영화적 대안에 대한 성찰은 분명한 어떤 결론을 지향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로빈 우드의 눈과 펜에 의해 여지없이 조각나고 새로운 형상으로 읽혀지는 것을 보면, 분명 평론가의 몫은 의미심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서구 영화평론의 첨단을 직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단점이려면 거론되는 영화를 자유롭게 다 구해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화서적들의 성과는 일단 만족할 만하다. 하지만 출판업이 호황을 맞을수록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각예술인 영화가 책으로 얼마나 설명될 것인가의 문제, 다시 말하면 창작보다도 해석만 기형적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아직도 방향성이 없다. 이 땅의 독자가 원하는 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보분석이 취약하다. 국내 저작물보다 외국 번역물이 많은 이유가 그 한 예이다. 저작물의 정도는 그 분야의 기반을 파악하는 척도이다. 문화의 방향성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기획이 아직은 부족하고 더욱 보강을 요하는 부분이다.